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A Study of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resilience Scale for Young Children

이수기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Suki Lee(Isklgh@hanmail.ne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만3, 4, 5세 유아 289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주의집중', '정서조절', '자기효능감', '공감', '또래관계'의 5개 요인의 26문항이 구성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델 적합도 지수는 RMSEA=.059, NNFI=.901와 CFI=.913로 나타났고,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KPRC의 자아탄력성 척도와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두 척도 간에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적일관성 지수인 Chronbach α 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유아 | 자아탄력성 척도 | 타당성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hildren's ego-resilience measurement scale and to exa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developed scale. Subjects consisted of 289 children of age 3 to 5 attending kindergarten and daycare centers located in Gwangju city and Chonnam province.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18.0 and Amos 18.0 programs. The children's ego resilience scale consists of 26 items of 5 factors(attention concentration, emotion control, self efficacy, empathy, peer relationship) after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vealed that RMSEA is .059, NNFI is .901 and CFI is .913.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acceptable with this study's scale and KPRC. Chronbach α were also acceptable. Thus, the developed children's ego resilience measurement scale is reliable and valid.

■ keyword : | Young Children | Ego-resilience Measurement Scale | Validity |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38284)

접수일자 : 2016년 10월 18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1월 16일

수정일자 : 2016년 11월 16일

교신저자 : 이수기, e-mail : Isklgh@hanmail.net

I. 서론

유아들은 성장하는 동안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발달과정에 위협을 받기도 하고,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성인들은 이러한 도전적 상황에 유아가 놓이지 않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기도 하지만, 불가피하게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유아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바란다. 그러나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도전이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떤 유아들은 어려움에 굴복하여 발달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어떤 유아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이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다.

자아탄력성의 개념에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는 자아탄력성을 성격의 한 유형으로 보고[1-3]환경적 제약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한 자아통제수준을 유지하여 이전의 자아통제로 되돌아가려하는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성[4-6]이라고 보는 인물 중심적 관점이다. 두 번째는 자아탄력성을 스트레스 상황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긍정적인 결과나 유능성을 이루는 것[7][8]으로 보아 '높은 위험상태나 만성적 스트레스 혹은 그로 인한 심각한 외상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변화해 가는 능력'[9][10]이라고 보는 변인 중심적 관점이다. 세 번째 관점은 위의 두 가지 관점을 아울러 자아탄력성을 타고난 기질과 인지능력과 같은 개인 내적인 특성인 유전적 영향과 부모의 지지적 양육이나 주변 상황과 같은 환경적 영향이 상호작용한다[11]고 보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위협과 새로운 사건의 영향을 바꾸도록 작용하는 개인의 내·외적인 능력'[12]이라고 보는 포괄적 관점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면 자아탄력성은 살아가는 동안 위협과 새로운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인 결과로 변화되도록 작용하는 개인의 내·외적 능력이며, 발달과정의 일상적 스트레스 상황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위협과 역경에 처해있든지 그렇지 않은 적절한 발달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13].

자아탄력성이 높은 유아는 자기효능감과 자기존중감이 높고, 긍정적인 자아상과 명백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10], 친구에게 관대하고, 놀랐을 때 평정을 바로 찾고, 새롭고 특이한 상황을 다루기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활기차며, 행동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며, 분노에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4].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유아는 스트레스 상황을 잘 조절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구성이 높으며[14], 스트레스 또는 문제 상황에서 보다 융통성 있고 통합된 수행능력을 보인다[2].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국외의 경우는 1970년대 후반 개인의 자아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의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시작되어 자아탄력성에 대한 가족, 사회, 문화, 역사와 같은 생태학적 체제의 상호작용을 밝히려는 과정 중심적 연구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개입 효과를 알아보는 자아탄력성 증진 방법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15]. 국내의 경우는 1990년대 이후부터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초·중·고등학교의 아동이나 청소년 혹은 고위험군의 아동을 대상으로 변인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와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이 시기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다. 일반유아를 대상으로 한 자아탄력성 관련 변인을 밝히는 연구[16-18]와 프로그램 개발 효과 검증 연구[19][20]가 시작되었고, 최근 들어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유아기의 자아탄력성 증진이 개인의 사회적 적응의 방편[13]이 될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21]라는 것이 밝혀졌고 발달과정의 예측 불가능한 잠재적 어려움에 대처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성취하는 데 자아탄력성이 필수적이라는 것[16][17]을 많은 연구자들이 인식하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렇듯 유아대상 자아탄력성 연구 수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구자들은 유아 자아탄력성 연구 수행의 어려움 중 하나로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동과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도구에 비

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며 유아 자아탄력성의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검사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13][21-24].

관련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검사 도구의 특징과 사용의 제한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측정 할 수 있는 국내 검사로는 한국아동인성검사(KPI-C: Korean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와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KPRC: 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의 하위 검사 중 하나인 자아탄력성 척도(ERS: Ego Resilience Scale)와 박은희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들 수 있고, 국외 검사를 번안한 것으로는 드브뤼 유아기 평가(DECA: Devereux Early Childhood Assessment)를 들 수 있다.

KPI-C[25]는 16개 하위검사로 이루어진 만 4세에서 만 15세용 인성검사 척도이다. KPRC는 KPI-C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개발되었다. KPRC의 하위검사 중 하나인 ERS는 19문항으로 구성된 5평정 척도로 개발된 이래로 초·중등 아동 대상 연구뿐만 아니라 유아용 척도의 부재로 인해 유아 대상 연구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되었다. ERS는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어 외국번안 척도보다 다수의 검사에서 사용되었지만, 인성이라는 종합적인 측면의 한 부분으로써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소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23]는 지적도 있다. 또한, 사용 연령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발달의 변화폭이 넓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유아의 자아탄력성 변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아탄력성의 정도를 세밀히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도 높은, 독립적인 척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박은희[26]의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과 Kremen[2]의 탄력성 도구 문항에,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 자유 기술식으로 작성한 문항을 추가하여 제작한 40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이 척도 역시 유아용 척도의 부재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유아 대상 선행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4점 척도를 그대로 사용[21][22][27]하거나 교사용 4평정 혹은 5평정 관찰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28][29]. 그

러나 이 척도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문항의 내용을 구성한 것이라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에 내용면에서 적절함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더구나, 개인 내면의 인식이나 정신적인 측면을 평정하기에 적합한 자기보고식 척도를 관찰 가능한 행동적인 면의 평정에 적합한 교사나 부모용 척도로 문항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도 없이 연구자 임의대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정밀한 연구 수행에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DECA는 부모나 교사가 만2세에서 만5세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보호요인을 평가할 때 사용하도록 개발된 척도이다[30]. 이 척도는 보호요인 27문항과 유아의 문제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행동문제 10문항으로 구성된 5평정 척도이다. 부모나 교사에 의해 유아의 행동을 보고하는 척도이므로 선별검사로 활용할 수 있고 유아의 강점과 문제를 측정하는 도구[31]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행동문제 하위요인을 포함하거나[18][32][33], 제외하여서[19][34-36] 번안한 후 사용되었다. 유아용으로 개발되어 유아의 자아탄력성 변인은 고려되었지만 외국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화적 괴리감 극복에 유의해야 한다[37]는 측면에서 볼 때 DECA를 국내 유아 대상 연구에서 타당도 검증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필요에 의한 교육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개발되어 아직까지 다른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연실[23]의 척도가 있다. 이 척도는 64문항의 교사용 5평정 척도이다. 척도의 개발자는 최초 문항 추출자의 대다수가 심리치료사였다고 밝히며 심리치료사는 심리내적인 변수를 깊이 있고 세밀하게 볼 수는 있지만 유아의 결함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23]을 연구의 제한점에서 밝히며 일반적인 유아의 특성이 충실히 반영된 검사도구의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 신혜경[38], 이금옥[39], 이지현[24]등은 외국의 아동용, 청소년용, 혹은 유아용 자아탄력성 척도를 수정번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선행 연구 도구의 문항을 추가하여 검사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척도는 타당성과 신뢰도가 검증되지 못한 상태로 불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유아교육 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독립적인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평가척도의 타당도는 무엇을 측정하는가 그리고 그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며 신뢰도는 측정도구가 측정하려는 것을 얼마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하는가의 문제[40]라는 측면에서 볼 때 평가척도의 개발에 있어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발달 변화 폭이 넓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변별력 있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광범위한 생활 전반에 관한 객관적 관찰과 해석이 용이한 교사에 의한 측정 방법이 최선[41]이라는 견지에서 교사가 평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신뢰도 높은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의 구성요인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위한 연구대상을 단계별로 표집 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광주광역시 소재한 2곳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151명의 유아 선정되었고, 본 조사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에 소재한 4곳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289명의 유아 선정되었다. 선정된 유아교육기관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며 연령별, 성별 표집 내용은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예비 조사	성별	남아
여아			76(50.3%)
연령		만3세	19(12.6%)
		만4세	54(35.8%)
		만5세	78(51.7%)
전체			151(100%)
본 조사	성별	남아	152(52.6%)
		여아	137(47.4%)
	연령	만3세	88(30.4%)
		만4세	108(37.4%)
		만5세	93(32.2%)
	전체		

2. 연구도구

2.1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주의집중, 정서조절, 자기효능감, 공감, 또래관계의 5개요인 26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의 범위는 26에서 130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평정되는 교사용 척도이다.

2.2 KPRC의 자아탄력성척도

(ERS: Ego Resilience Scale)

개발된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의 공인 타당도 검증을 위해 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42]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우순연이 교사용으로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제작자와 우순연의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서 이수기[13]가 또래관계와 자신감, 자기수용, 가족관계, 충동조절, 낙천성으로 하위요인을 나눈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과 문항 및 신뢰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KPRC-ERS의 하위요인과 문항 및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a
또래관계와 자신감	5	3, 4, 9, 15, 19	.822
자기수용	3	1, 12, 18	.687
가족관계	4	5, 6, 8, 10	.325
충동성	4	11, 13, 16, 17	.663
낙천성	3	2, 7, 14	.757
전체	19		.844

3. 연구절차

3.1 기초조사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관련 유아 대상 자아탄력성 선행연구[13][20][23][24][26][30][38][39][43]에서 밝힌 요인을 검토 분석하여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의 하위요인을 주의집중, 감정조절, 공감, 자기수용, 또래관계로 하위요인을 분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의 하위요인

하위요인	공통요인 추출
주의집중	주의력[43], 자기통제[30], 집중력[39], 문제해결력, 몰입성[23]
정서조절	자기통제[30], 감정통제[26], 자기조절[13], 충동통제[24]
자기효능감	자기효율성[43], 자기수용[30], 유능감 [38], 자기수용[13], 자기효능감[24],
공감	조망수용과 공감[43], 자기위로, 타인이해[23], 공감[24],
또래관계	우정[43], 대인관계[26], 친밀성[23], 또래관계 [13][20]

유아의 자아탄력성 구성 요인이 분류된 후 각 구성요인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하여 82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문항에 대해 유아교육전문가12인(유아교육과에 재직 중인 교수 3인,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5인, 유아교육기관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유아교사 4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게 선정된 요인과 문항의 내용이 각 구성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문항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가와 같은 문항이해도와 내용타당도를 5평정으로 평가의뢰 하였다. 1차 타당도 검증에서 평가 결과 3.5점 이하의 문항 적절성과 문항 이해도를 보인 문항과 내용면에서 중복되는 문항 25개를 삭제하여 57문항을 선정했고, 2차 타당도 검증에서 3.5점 이하의 문항적절성과 문항 이해도를 보인 문항과 중복된 내용의 12개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구성된 예비문항에 대해 유아교사 10인에게 질문지 평정을 의뢰하여 작성 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문항 표현에 어려운 점을 없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별다른 수정사항은 나타나지 않아 예비조사를 위한 유아자아탄력성 척도 45문항은 완성되었다.

3.2 예비조사

기초조사에서 구성된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예비조사에서는 광주광역시 소재 2곳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3세 19명, 만4세 54명, 만5세 78명의 유아 151명의 담임교사 15명이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관련성이 많은 문항끼리 묶어 요약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시 극단치로 간주될 수 있는 공통성(Communality)이 .4이하인 문항, 각 변수와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주는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의 절대값이 ± .4 이하인 문항, 변수가 다수의 요인과 상관을 보이는 문항을 삭제하였다[44]. 이러한 과정을 통해 26문항의 본 조사를 위한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가 구성되었다.

3.3 본 조사

본 조사에서는 예비조사 대상이 아닌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 4곳에 재원 중인, 만3세, 만4세와 만5세 유아 300명의 담임교사 25명이 2016년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의 구인타당도와 공인타당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반응이 불성실한 11부를 제외하고 총 289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초조사에서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했고, 예비조사에서는 문항을 요약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유아자아탄력성 척도 모델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하였고 개발된 척도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했고,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hronbach α를 확인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유아 자아탄력성 평가 척도의 요인 구성

기초 조사에서 구성된 45문항을 대상으로 하여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의 요인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모형으로는 주성분 분석법, Varimax 회전 방법을 사용했고 탐색 결과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은 5요인으로 밝혀졌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자료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KMO 측도는 .852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5%보다 작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KMO와 Bartlett의 검정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측도		.85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카이제곱	2001.620
	자유도	325
	유의확률	.000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 26문항을 5개의 요인으로 추출 분석한 결과, 전체 변량의 62.162 %를 설명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고, 문항 내용에 근거하여 요인을 명명하면 다음과 같다.

요인1은 ‘주의집중’로 명명했고, 유아 자아탄력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초기 고유값은 4.213이며, 전체 변량의 16.205%를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2는 ‘정서조절’로 명명하였으며, 초기 고유값은 3.246이

표 5.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번호	문항내용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공통성	
		주의집중	정서조절	자기 효능감	공감	또래관계		
19	주어진 과제나 활동에 몰입한다.	.840	.144	.188	.129	.159	.803	
41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획한다.	.770	.147	-.093	.183	.183	.690	
4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한다.	.739	.277	.066	.143	.292	.733	
11	규칙이나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730	.325	-.065	.261	.005	.711	
6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	.707	.371	-.010	.147	.086	.573	
16	하고 있던 일을 끝까지 해내려고 매달린다.	.619	.037	.294	.245	.206	.666	
1	쉽게 기분이 상하여 빠진다.	.186	.787	-.107	-.025	.263	.736	
28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말을 자주한다.	.293	.709	-.155	-.004	-.022	.576	
26	감정 기복이 심하다.	.091	.679	.040	.058	.319	.614	
33	잘못했을 때, 나무라면 잘못을 인정한다.	.162	.670	-.111	.302	-.074	.547	
44	불같이 성질을 낸다.	.219	.667	.148	.154	.090	.585	
22	자기를 좋아한다.	.149	-.008	.780	.157	-.013	.634	
40	자신이 이룬 성취를 자랑스러워한다.	.237	-.015	.754	.084	.054	.587	
23	새로운 것에 대해 호기심을 보인다.	-.116	-.060	.722	.113	.159	.656	
20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181	-.169	.588	.302	.297	.577	
37	다른 사람이 하는 활동에 흥미를 보인다.	.073	.003	.537	.137	.444	.510	
42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187	.223	.081	.728	.031	.622	
27	다른 사람에게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114	.225	.285	.638	-.022	.552	
18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한다.	.386	.243	.116	.620	.070	.518	
24	다른 사람에게 함께 활동하자고 제안 한다	-.029	-.031	.285	.618	.231	.610	
39	다른 사람과의 불편한 감정을 잘 다룬다.	.302	-.223	.006	.607	.192	.539	
35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해서 나선다.	.304	.133	.181	.578	.248	.547	
9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잘 형성한다.	.243	.243	.160	.218	.725	.716	
3	다른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	.245	.069	.048	.254	.698	.619	
15	친구와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074	.117	.495	.174	.616	.675	
32	다른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다.	.340	.257	.209	-.131	.568	.566	
고유값		4.213	3.246	3.077	3.06	2.566		
설명변량 백분율		16.205	12.484	11.834	11.77	9.869		
누적변량 백분율		16.205	28.689	40.523	52.293	62.162		
요인별 신뢰도		.896	.807	.778	.795	.790		
전체 신뢰도		.904						
문항 수		6	5	5	6	4	26	

며, 전체변량의 12.484%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3은 ‘자기효능감’로 명명하였으며, 초기 고유값이 3.077이며, 전체변량의 11.834%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4는 ‘공감’로 명명하였으며, 초기 고유값이 3.06이며, 전체변량의 11.77%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5는 ‘또래관계’로 명명하였으며, 초기 고유값이 2.566이며, 전체변량의 9.869%의 설명력을 보였다.

2.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의 타당도

2.1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의 모델적합도 검증을 통한 타당도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의 측정 모델 적합도를 검증하고 측정하려는 개념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조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정된 5개요인, 26개 문항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델 적합도 판정은 χ^2 과 자유도 비인 Normed χ^2 (CMIN/F), RMR(Root Mean-Squared Residual)와 홍세희[45], 김경희, 박주영과 권재환[46]과 성태제[47]가 구조방정식 판정의 지수 중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이 고려된 바람직한 지수로 선정한 NNFI(Non-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를 기준으로 모델의 적합도를 판정하였다.

첫 번째 모델의 경우 χ^2 의 값이 655.276이고 자유도가 289로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CMIN/DF(2.267)와 RMR(.047), RMSEA(.066)는 기준에 적합하지만 NNFI(.877)와 CFI(.890)는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6.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 모델의 부합도 지수

모델	CMIN/DF	RMR	NNFI	CFI	RMSEA	
측정모델	2.267	.047	.877	.890	.066	
					LO 90	HI 90
					.060	.073
판단지수	3이하	.05이하	.90이상	.90이상	.08이하(양호)	
결과	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적합	

첫 번째 모델의 적합도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모델 수정을 통해 모델 적합도를 높였다. 우종필[48]은 구성개념(잠재변수)간의 경로를 추가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경로를 추가하는 방법이 제거하는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변화량을 높이지 않으므로 경로를 추가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Amos에서는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MI)를 이용해 모델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정지수를 확인해 4개의 공분산 관계의 경로를 추가하여 두 번째 모델을 구성하였다. 수정지수를 활용한 두 번째 모델의 적합도를 판정하면, χ^2 의 값은 574.091이고 자유도는 285로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CMIN/DF(2.014)와 RMR(.045), RMSEA(.059), NNFI(.901)와 CFI(.913)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 26문항은 주의 집중 6문항, 정서조절 5문항, 자기효능감 5문항, 공감 6문항, 또래관계 4문항의 5개 요인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표 7. 최종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 모델의 부합도 지수

모델	CMIN/DF	RMR	NNFI	CFI	RMSEA	
측정모델	2.014	.045	.901	.913	.059	
					LO 90	HI 90
					.052	.066
판단지수	3이하	.05이하	.90이상	.90이상	.08이하(양호)	
결과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그림 1]의 경로와 같이 1요인인 ‘주의집중’에 대한 각 변인의 부하량은 .56~.81, 2요인인 ‘정서조절’에 대한 각 변인의 부하량은 .45~.80, 3요인인 ‘자기효능감’에 대한 각 변인의 부하량은 .54~.74, 4요인인 ‘공감’에 대한 각 변인의 부하량은 .50~.70, 5요인인 ‘또래관계’에 대한 각 변인의 부하량은 .61~.91로 나타났다. 5개 하위요인들 간에는 .54~.74의 상관관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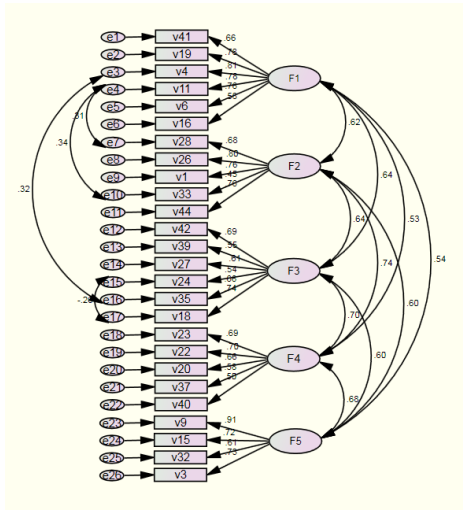


그림 1.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의 최종모델

2.2 공인타당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아자아탄력성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KPRC의 ERS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공인 타당도를 산출한 결과 유아자아탄력성 척도와 KPRC의 ERS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r=.831,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유아자아탄력성 척도와 KPRC-ERS의 하위 영역 간에도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자아탄력성 척도와 KPRC-ERS 와의 상관

자아탄력성 KPRC	주의 집중	정서 조절	자기 효능감	공감	또래 관계	전체
가족관계	.396**	.530**	.370**	.381**	.415**	.536**
충동조절	.546**	.685**	.399**	.378**	.422**	.635**
또래관계와 자신감	.351**	.321**	.602**	.572**	.689**	.611**
낙천성	.437**	.541**	.631**	.535**	.684**	.697**
자기수용	.511**	.616**	.428**	.490**	.530**	.661**
전체	.589**	.703**	.649**	.628**	.730**	.831**

**p<.01

3.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의 신뢰도

개발된 자아탄력성 척도 문항간의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산출한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지수인 Chronbach α 계수는 [표 9]와 같다. 분석결과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24로 매우 양호하였으며, 주의집중은 .873, 정서조절은 .824, 자기효능감은 .762, 공감은 .790, 또래관계는 .819로 나타났다.

표 9.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의 문항 내적 일치도

요인	문항수	Chronbach α
주의집중	6	.873
정서조절	5	.824
자기효능감	6	.762
공감	5	.790
또래관계	4	.819
전체 자아탄력성	26	.924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자아탄력성 척도의 문항을 구성하고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여 교사 평정용 유아자아탄력성 척도를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조사에서는 문항 구성에 앞서 문헌연구 고찰과 기존 검사도구 분석을 통해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을 추출하고 각 요인과 관련된 82개의 예비문항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구성된 예비문항을 2차례에 걸쳐 유아교육전문가 집단에게 문항이해도와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고 완성된 45개의 문항을 현직교사에게 검증 받아 최종적으로 예비조사를 위한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의 문항이 동일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 확인하는 타당성 검증과 상관이 높은 문항끼리 묶어 내용을 단순화하는 변수 축소를 목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주의집중’, ‘정서조절’, ‘자기효능감’, ‘공감’, ‘또래관계’의 5요인으로 문항이 축소되었다. 1요인인 ‘주의집중’은 전체 변량의 16.205%를 설명하는 6문항으로 이연실[23], 이금옥[39]과 Daniel과 Wassell[43]의 연구에서도 유아 자아탄력성의 구인으로 추출되었던 요인이다. ‘주의집중’요인은 주어진 과제

나 활동에 몰입하여 해야 할 일을 하고, 행동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고 계획하며, 규칙이나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집중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고 있던 일을 끝까지 해내려고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요인인 ‘정서조절’은 전체 변량의 12.484%를 설명하는 5문항으로 이지현[24]과 박은희[26]의 연구에서도 유아 자아탄력성의 구인으로 추출되었던 요인이다. ‘정서조절’요인은 쉽게 기분이 상하거나 빠지지 않고 화를 잘 내지 않고 감정변화가 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요인인 ‘자기효능감’은 전체 변량의 11.834%를 설명하는 6문항으로 Daniel과 Wassell[43], 이지현[24]의 연구에서도 유아 자아탄력성의 구인으로 추출되었던 요인이다. ‘자기효능감’은 스스로를 좋아하고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며 새로운 것과 다른 사람이 하는 활동에 흥미를 보이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요인인 ‘공감’은 전체 변량이 11.77%를 설명하는 5문항으로 이지현[24], 신혜경[38]과 Daniel과 Wassell[43]의 연구에서도 유아 자아탄력성의 구인으로 추출되었던 요인이다. ‘공감’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행동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자신해서 도우려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동감하고 불편한 감정을 잘 다룬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요인인 ‘또래관계’는 전체 변량의 9.869%를 설명하는 4문항으로 이수기[13], 장태숙[20]과 Daniel과 Wassell[43]의 연구에서도 유아 자아탄력성의 구인으로 추출되었던 요인이다. ‘또래관계’요인은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인기가 많고 놀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친구로부터 놀림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5개요인 26문항은 62.162%의 전체 설명변량을 보였다. 이는 척도를 구성할 때 누적 분산이 공통 분산의 60% 이상이 되도록 요인의 수를 정해야 하고, 하나의 구인을 설명하기 위해 다섯 개 이상이 문항이 요구된다는 성태제[47]의 기준에 부합되는 결과이다.

둘째, 본 조사의 자료로 유아 자아탄력성 평가 척도 모델이 타당한지 적합도를 산출하였다. 첫 번째 모형의

경우 NNFI와 CFI가 적합도 기준에 못 미쳐, 수정지수를 활용해 모델의 적합도를 향상시켰다. 그 결과 두 번째 모델에서는 CMIN/DF(2.014)와 RMR(.045), RMSEA(.059), NNFI(.901)와 CFI(.913)가 모두 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는 적합도 기준을 양호한 수준에서 만족시키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유아의 자아탄력성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잠재변수의 부하량을 살펴보면 각 요인들 간의 상관이 .53에서 .74로 나타났고, 관측변수의 부하량을 살펴보면 ‘주의집중’요인과 문항 간에는 .56~.81, ‘정서조절’요인과 문항 간에는 .45~.80, ‘자기효능감’요인과 문항 간에는 .54~.74, ‘공감’요인과 문항 간에는 .50~.70, ‘또래관계’요인과 문항 간에는 61~.91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의 5요인 간에는 변별성을 갖춘 관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요인과 문항 간에는 수렴성을 보이는 집중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아의 자아탄력성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KPRC와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유아의 자아탄력성 척도의 하위요인인 ‘주의집중’, ‘정서조절’, ‘자기효능감’, ‘공감’, ‘또래관계’는 KPRC의 하위요인인 ‘또래관계와 자신감’, ‘가족관계’, ‘충동조절’, ‘낙천성’, ‘자기수용’과 .321에서 .697의 상관이 있고, 전체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와 KPRC의 ERS와의 상관은 .83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구성된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KPRC-ERS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임으로써 공인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 신뢰도 지수인 Chronbach α 계수를 분석한 결과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24로 매우 양호하였으며, 주의집중은 .873, 정서조절은 .824, 자기효능감은 .762, 공감은 .790, 또래관계는 .819로 나타났다. 이는 구성된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이 일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기준에 자주 사

용하던 KPRC의 ERS척도는 4세에서 15세용 인성검사의 하위검사 중 하나로 19문항으로 구성되어서 넓은 연령 범위에서 사용된 인성의 하위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을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구성된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는 만3세에서 만5세 유아에게 적합하게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을 5요인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타당성이 높게 구성되었다. 또한,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박은희[26]의 척도도 다수의 연구에서 수정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이 척도는 문항내용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성한 것이라 유아의 자아탄력성 측정에 내용면에서 적절함에 대한 논의와 원 개발자가 자기보고식 척도로 개발한 것을 부모용이나 교사용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적절함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이런 사항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구성된 자아탄력성 척도는 유아전문가와 유아교사에 의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은 척도로서 유아의 평정에 객관적일 수 있는 교사에 의해 손쉽게 평정이 이루어지는 척도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만2세에서 만5세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부모나 교사에 의해 평정하는 척도인 DECA[30]는 유아의 자아탄력성 변인이 고려된 척도로 국내연구에서 변안하여 다수의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나 외국의 척도를 국내 유아를 대상으로 타당도 검증 없이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구성된 유아 자아탄력성 척도는 국내의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것으로 앞으로 관련연구에서 활용이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개발된 척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함으로써 유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발달을 예측하여 긍정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용 될 수 있고, 연구자들이 유아 자아탄력성의 다양한 변인을 찾고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와 더불어 유아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연구에도 사용되어 관련 연구의 활발한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추후연구를 제안하면, 첫째, 본 도구는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교사에 의해 측정하도록 개발되어 교실에서 관찰되는 유아의 행동에서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아탄력성과 관련

하여 교실이 아닌 가정에서의 관찰내용에 대한 부모의 보고 또한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모에 의해 평정될 수 있는 척도로 함께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일정수의 유아를 대상으로 척도가 개발되었으나 앞으로는 연구대상을 양적으로 지역적으로 확대 표집하여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J. H. Block and J.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Hillsdale, NJ : Erlbaum, Vol.13, pp.39-101, 1980.
- [2]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2, pp.349-361, 1996.
- [3] D. Hart, V. Hofmann, W. Edelstein, and M. Keller, "The relation of childhood personality types to adolescent behavior and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Icelandic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3, pp.195-205, 1997.
- [4] J. Block,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Vol.53, pp.281-291, 1982.
- [5] 이현주, 권수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 애착이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0호, pp.347-355, 2013.
- [6] J. Taub and M. Pearrow, "Resilience through school wide violence prevention," In S. Goldstein & R. Brooks(Eds.),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New York: Springer, 2005.
- [7] S. S. Luther, D. Cicchetti, and B. Becker, "The

-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Vol.71, pp.543-562, 2000.
- [8] A. S. Masten and J. D. Coatsworth,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favorable environments," *American Psychologist*, Vol.53, pp.205-220, 1998.
- [9] N. Garnezy,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Vol.56, No.1, pp.127-136, 1993.
- [10] M. Rutter,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57, pp.316-331, 1987.
- [11] K. Deater-Deckard, L. Ivy, and J. Smith, "Resilience in gene-environment transaction," In S. Goldstein & R. Brooks (Eds.),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New York: Springer, 2004.
- [12] C. A. Olsson, L. Bond, J. M. Burns, D. A. Vella-Brodrick, and S. M. Sawyer, "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Vol.26, pp.1-11, 2003.
- [13] 이수기, *유아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성, 연령, 다문화변인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4] 박현진,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15] M. O. D. Wright and A. S. Masten,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In S. Goldstein & R. B. Brooks (Eds.),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New York: Springer, 2005.
- [16] 김선희, "유아의 탄력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영향," *유아교육연구*, 제25권, 제4호, pp.191-210, 2005.
- [17] 이완정, "발달과정에서 위험요소에 노출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보호요인분석," *아동학회지*, 제23권, 제1호, pp.1-16, 2002.
- [18] 전은희, *어머니-자녀 상호작용과 유아의 탄력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9] 구희정,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20] 장태숙, *그림책을 활용한 표현활동이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우울성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1] A. S. Masten and A. H. Gewirtz,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in early child development," In McCartney k., Phillips D. A., (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New York:Blackwell, 2006.
- [22] 이다경, *영성지향 감사프로그램이 유아의 우울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23] 이연실, *유아의 탄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24] 이지현, *만5세 유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의 회복탄력성의 경향과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25] 김승태, 김지혜, 송동호, 이효경, 주영희, 홍창의, 황순택, *한국 아동인성 검사*, 서울: 한국가이던스, 1997.
- [26] 박은희, *자아탄력성,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27] 박미현, *영성지향 협동 활동이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28] 권상옥, *영성지향 사랑교육활동이 탄력성과 우울성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 유아의 자아탄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29] 박은성, *부모 양육태도와 유아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30] J. A. Naglieri and P. A. LeBuffe, "Measuring resilience in children," In S. Goldstein & R. B. Brooks(Eds),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New York: Springer, 2005.
- [31] A. S. Carter, M. J. Briggs-Gowan, and N. O.

Davis, "Assessment of young children's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recent advances and recommendations for practi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45, No.1, pp.109-134, 2004.

[32] 용명선,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변혁적 리더십이 유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33] 최난영, *부모의 낙관성 및 유아의 낙관적 믿음과 유아의 탄력성*,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34] 고영희,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35] 고윤희, *어머니 정서표현성 및 영유아 탄력성이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과 연령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36] 박영심, *유아의 탄력성과 또래놀이 상호작용 및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의 관계*,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37] 이운주,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부모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급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5권, 제2호, pp.435-449, 2004.

[38] 신혜경, *유아교사가 인식한 유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에 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39] 이금옥, *유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에 대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인식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40] 박은영,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에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의 요인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1권, 제8호, pp.221-230, 2011.

[41] 이은주, 이경민, "교사용 유아생활만족도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30권, 제4호, pp.27-49, 2010.

[42] 조선미, 박혜연, 김지혜, 홍창희, 황순택, "한국 아동 인성 평정 척도(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KPRC)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제25권, 제3호, pp.825-848, 2006.

[43] B. Daniel and S. Wassell, *Assessing and Promoting Resilience in Vulnerable Children, volumes 1, 2 and 3*, London and Philadelphia, Jessica Kingsley Publishers Ltd, 2002

[44] 송지준,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 분석 방법*, 경기: 21세기사, 2009.

[45] 홍세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임상*, 제19권, 제1호, pp.167-177, 2000

[46] 김경희, 박주영, 권재환, "한국형 수용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8호, pp.132-146, 2016.

[47] 성태제,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 학지사, 2010.

[48] 우종필,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한나래출판사, 2012.

저 자 소 개

이 수 기(Suki Lee)

정희원



- 1991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문학사)
 - 2005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교육학석사)
 - 2011년 8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교육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목포가톨릭대학교,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외래교수
- <관심분야> : 유아발달, 유아과학, 유아멀티미디어